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nd Marital Qua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석사 강유진**

교수 옥선화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Graduate Student : Kang, Eu-Gene

Professor : Ok, Sun-W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on marital qua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and to find out what sub-scales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have effect on marital qual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1 married men and 302 married women living with their unmarried children in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 All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he analysis includes frequencies, means,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is below the average, and the married women show slightly higher level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than the men.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marital quality of the married men and women is slightly above the average with no difference between the men and the women. 2) In the case of the married men, the sub-scales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that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marital quality are 'partners cannot change', 'disagreement is destructive,' and 'sexes are different'. 3) In the case of the married women, the sub-scales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that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marital quality are 'partners cannot change' and 'disagreement is destructiv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have negative effect on marital quality. However, the effect of each sub-scales shows slight differences in gender. The finding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 program for promoting marital quality by reducing the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should take the gender differences into consideration.

▲주요어(Key Words) :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기혼남녀(married men and women)

1. 문제제기

결혼한 남녀는 누구나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자신 및 상대방에 대한 요구나 기대도 존재할 것이며, 또 남편과 부

인으로서의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가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부부간에 일치하지 않으면 부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인지가 왜곡되면 부부는 자연히 불만족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사고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인지적 요소인 비합리적 신념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결혼의 질에 어떠한 미치는지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 저 자 : 강유진 (E-mail : sabrina1@snu.ac.kr)

비합리적 신념은 Ellis와 Harper(1975)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서, 이들은 부부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비합리적 신념, 혹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기준을 가질 때 결혼의 질과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Eidelson과 Epstein(1982)은 부부관계에 대하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과 기준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제안하였고, 이후 서구의 많은 연구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을 낮춘다고 보고했다(Baucom & Epstein, 1990; Fincham & Bradbury, 1989; Kurdek, 1999; Larson, 1992; Moller & Van Zyl, 1991).

그러나 이러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인지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기존의 서구에서 규명되어 온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부정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부관계는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따라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혼남녀가 지니고 있는 부부관계와 배우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부부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최근에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있었으나(하상희, 정혜정, 2000), 신혼기 부부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에 관한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신념이 결혼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 관련 가치관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및 기대에 남녀 간의 성차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권희완, 1992; 김경신, 이선미, 1998; 이성희, 1992; 이숙희, 전영주, 2004; 이재림, 옥선화, 이경희, 1992; 하상희, 정혜정, 2000),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에 있어서도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성차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출발된 이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기혼남녀가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전반적인 수준과 성차를 파악한 후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각 하위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부부관계의 한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기혼남녀가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체계와 사고방식의 역기능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부부의 결혼의 질의 향상을 위한 가족치료 및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나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부부관계와 배우자에 대해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역기능적인 신념으로,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하게 하는 비교적 안정된 인지경향으로 간주된다(Kurdek, 1993).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부부관계에 대한 왜곡된 가정과 기준에 기반한 신념이다. 이 신념은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잘못된 표상을 제공하고, 부부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게 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유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Eidelson과 Epstein(1982)은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20명의 가족치료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부부의 비합리적인 가정과 기준을 포괄하는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설명된다.

첫째, '의견 불일치 영역'은 부부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념을 나타낸다. 의견차이 자체보다, 의견불일치를 배우자의 애정 부족이나 심지어는 이혼으로 연결시키는 비합리적 신념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예를 들면,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식의 대화를 하거나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Satir(1967)는 가치, 태도, 목표, 선호 등에 대한 불일치를 부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마음 알아주기 영역'은 부부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나타낸다. 즉, 부부가 서로를 위해주고 정말 서로를 잘 알고 있다면 명백한 의사소통 없이도 배우자의 욕구와 선호를 알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 신념은 일반적으로 실망감, 오해,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다(Gottman et al., 1976; Jacobson & Margolin, 1979; Ledere & Jackson, 1968). 또한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욕구나 입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매우 불만스럽게 느낀다.

셋째,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은 배우자의 생각이나 행동은 앞으로 좀처럼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념을 나타낸다. 즉 아무리 친밀한 부부라도 스스로를 혹은 부부관계의 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신념으로서, 현재 부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극단적인 가정을 나타낸다(Hurvitz, 1970). Doherty(1981)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고, 부부관계에 덜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성적 완벽주의 영역'은 성관계를 통하여 부부는 완벽한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는 신념을 나타낸다. 배우자가 성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은 성적 반응이나 성행동에 장애물로 작용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섯째, '성고정관념 영역'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신념을 나타낸다. 성격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남녀가 매우 다르다는 이 신념은 배우자를 고정관념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고 배우자의 요구나 성격 특질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Doherty(198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념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를 비난하게 하고,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며, 부부관계에서 무기력한 반응을 유발한다고 밝혀졌다(Eidelson & Epstein, 1982).

이상의 개념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Eidelson과 Epstein(1982)의 부부관계와 배우자에 관한 비합리적인 가정과 규준을 포괄하는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결혼의 질

결혼의 질은 사회과학자들이 결혼을 성공적인 결혼과 실패한 결혼으로 구분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결혼이 지속되는 우선적 결정요인인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Glenn(1998)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결혼의 질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논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결혼의 질로 보는 입장과, 부부의 상호작용과 같은 부부관계 자체를 결혼의 질로 보는 입장으로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였다.

개인적 지각이 결혼의 질을 반영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남편과 부인 간 상호작용에는 개인적 지각만이 존재하므로 결혼의 질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라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도가 곧 결혼의 질을 반영하므로 결혼에 대한 개인의 평가만이 결혼의 질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Fincham과

Bradbury(1987)는 행복감, 성공, 의사소통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결혼의 질에 포함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하나의 개별 차원인 결혼 행복도를 결혼의 질의 지표로 측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들은 결혼의 질이라는 개념은 부부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남편과 부인간의 실제 적응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결혼의 질을 두 배우자간의 관계의 특성으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갈등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관계적 특성의 양과 질이 결혼의 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적응을 결혼의 질로 보는 입장을 지지한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 만족도, 행복감, 역할 긴장과 갈등, 의사소통, 통합, 적응 등의 모든 용어들을 포괄하기 위해 결혼의 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즉 결혼의 질은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객관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결혼의 질을 '부부관계의 다양한 차원과 평가수준에 대한 결혼한 부부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고, 결혼의 질은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생활 기능의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높은 결혼의 질은 훌륭한 판단, 적절한 의사소통, 높은 결혼 행복도, 통합, 관계에 대한 고도의 만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을 갈등이나 의사소통과 같이 부부관계의 다양한 특성의 양과 질을 모두 포함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는 후자의 관점에 기초하여, 결혼의 질을 부부관계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

현재까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다룬 서구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상희, 정혜경, 2000; Bradbury & Fincham, 1993; Emmelkamp et al, 1987; Fincham & Bradbury, 1989; Jones & Stanton, 1988; Kurdek, 1999; Moller & Van Zyl, 1991).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부간 의사소통문제, 부정적 귀인, 가족치료를 통한 부부관계 개선에 대한 낮은 기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Epstein et al., 2005).

먼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역기능적 부부관계 행동을 가져오므로 결혼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Eidelson과 Epstein(1982)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부부간에 협력적인 의사소통보다는 강요나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갈등해소를 하게 함으로써 문제시 된다고 보았다. 즉, 부부간에 불일치가 생겼을 경우에,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나 자신의 부부관계가 달라질 것이

라는 기대가 없으므로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패턴이 반복되면 결혼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실제 결혼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데, 이 경우 분노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결혼의 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Vangelisti와 Daly(1997)는 부부관계 내에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배우자의 실제 행동에 대한 인식 간 불일치가 결혼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부관계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 가정과 규준에 부응하기를 기대하는 개인은 실제 자신의 부부관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매우 실망하고 불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Ellis(1997, 김진숙, 권석만, 2003에서 재인용)는 결혼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대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부부관계의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예언을 정확하게 발달시키고 적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적응적인 과정이나 부정확한 정보나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여 왜곡된 기대가 형성될 때 관계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에서, 하상희와 정혜정(2000)은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비합리적인 기대와 대비되는 현실의 결혼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역기능적 성격으로 인해 부부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로부터 발생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결혼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혼부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 신념인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의 질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은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에 대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하위영역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의 구성

1)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Eidelson과 Epstein(1982)이 개발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Relationship Belief Inventory: RBI)¹⁾를 기초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점수범위는 23점에서 1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에서 사용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 23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1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각 하위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의견 불일치 영역(6문항)이 .82,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7문항)이 .66, 성적 완벽주의 영역(5문항)이 .60, 성교정관념 영역(5문항)이 .6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결혼의 질

결혼의 질 척도는 Spanier(1976)가 개발한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를 Busby와 동료들(1995)이 재구성한 개정된 부부적응척도(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RD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의, 만족, 응집으로 이루어진 결혼의 질의 3가지 하위 영역을 측정하는 14문항으로, 활동 영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나머지 영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14점에서 8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 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있는, 초혼상태에 있는 기혼남녀이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5년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총조사 625부 중에서 질문지에 응답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남성 301부와 여성 302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1) RBI는 의견 불일치 영역, 마음 알아주기 영역, 배우자의 변화 가능성 영역, 성적 완벽주의 영역, 성교정관념 영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40문항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까지 6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를 살펴보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을 제거한 후 남은 23문항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5가지 하위영역 중 마음 알아주기 영역은 신뢰도 수준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남성	여성
		빈도(%)	빈도(%)
연령	20대 후반~30대	127(42.2)	156(51.7)
	40대	107(35.5)	108(35.8)
	50대~60대 초반	67(22.3)	38(12.6)
		301(100.0)	302(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114(37.9)	175(57.9)
	대졸이상	187(62.1)	127(42.1)
		301(100.0)	302(100.0)
직업	반전문기술직	16(5.3)	15(5.0)
	사무직	138(45.8)	33(10.9)
	판매·서비스	106(35.2)	83(27.5)
	생산직	32(10.6)	6(2.0)
	전업주부	.	165(54.7)
	무직, 퇴직	8(2.7)	.
	기타	1(0.3)	.
		301(100.0)	302(100.0)
가구의 월소득	250만원 미만	90(29.9)	103(34.1)
	250~500만원 미만	151(50.2)	148(49.0)
	500만원 이상	60(19.9)	51(16.9)
		301(100.0)	302(100.0)
종교	기독교	91(30.2)	113(37.4)
	천주교	53(17.6)	62(20.5)
	불교	36(12.0)	43(14.2)
	기타	2(0.7)	2(0.7)
	종교 없음	119(39.5)	82(27.2)
	301(100.0)	302(100.0)	
결혼지속 기간	5년 미만	40(13.3)	40(13.2)
	5년~10년 미만	84(27.9)	84(27.8)
	10년~15년 미만	64(21.3)	65(21.5)
	15년~20년 미만	36(12.0)	36(11.9)
	20년 이상	77(25.6)	77(25.5)
		301(100.0)	302(100.0)
결혼 전 교제기간	1년 미만	131(43.5)	140(46.4)
	1년~3년 미만	113(37.5)	104(34.3)
	3년 이상	57(18.9)	58(19.2)
		301(100.0)	302(100.0)
결혼형태	중매혼	66(21.9)	62(20.5)
	연애혼	182(60.5)	181(59.9)
	소개혼	53(17.6)	59(19.5)
		301(100.0)	302(100.0)

4.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에서의 남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혼남녀의 배경 변수에 따라 결혼의 질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추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경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의 질의 전반적 경향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전체적인 경향과 하위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성차는 <표 2>와 같다.

우선 기혼남성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척도점수범위: 23-138점, 중간값: 80.5점)은 평균 74.02점(표준편차: 10.12)으로서 중간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도 평균 76.54점(표준편차: 10.35)으로서 중간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라 성별로 차이가 있어, 기혼여성이 기혼남성에 비해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2, p<.01$).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기대가 크며(권희완, 1992), 부부관계에 관해 더 비합리적이라는(하상희, 정혜정, 2000)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 영역별로 볼 때, '의견 불일치 영역'은 남녀 모두 중간 수준 이하로 낮은 수준의 비합리적 신념을 보였다. '의견 불일치 영역'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서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의견 불일치가 부부관계의 질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6, p<.001$).

또한 기혼남녀는 배우자나 부부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중간보다 낮은 수준의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은 성별로 차이를 보여, 기혼여성이 남성보다는 배우자나 부부관계의 본질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t=-4.29, p<.001$).

'성적 완벽주의 영역'의 경우도 남녀 모두 중간 수준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그 수준에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기혼남성이 여성보다는 성적 완벽주의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높았다($t=6.30, p<.001$).

이에 비해 '성고정관념 영역'은 남녀 모두 중간 수준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그 수준에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기혼여성이 남성보다 성고정관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높았다($t=-4.42, p<.001$).

<표 2>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전반적 경향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점수범위 (중간값)	남성 (N=301)	여성 (N=302)	t
		평균(SD)	평균(SD)	
전체	23-138(80.5)	74.02(10.12)	76.54(10.35)	-3.02**
의견 불일치	6-36(21)	18.29(4.50)	19.78(4.50)	-4.06***
배우자 변화 가능성	7-42(24.5)	19.79(3.65)	21.18(4.30)	-4.29***
성적 완벽주의	5-30(17.5)	16.71(3.19)	15.15(2.91)	6.30***
성고정관념	5-30(17.5)	19.23(3.40)	20.43(3.25)	-4.42***

* p<.05. ** p<.01. *** p<.001

<표 3>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의 전반적 경향

	점수범위 (중간값)	남성 (N=301)	여성 (N=302)	t
		평균(SD)	평균(SD)	
결혼의 질	14-83(48.5)	58.55(9.14)	57.41(10.29)	1.44

* p<.05. ** p<.01. *** p<.001

한편,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은 평균 57.98점으로서 중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척도점수범위: 14-83점, 표준편차: 9.74). 이를 볼 때, 이 연구에서 표집된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은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결혼의 질은 약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부관계에 대해 더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수준을 보인 하상희와 정혜정(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부부관계에 관해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서구의 연구(Jones & Cunningham, 1996; Larson, 1988; Sharp & Ganong, 2000; Sprecher & Metts, 1999)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부관계에 대해 더 낮은 수준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서구의 연구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성(Duffy & Rusbult, 1986)과,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부추기는 사회화 경향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Bernard, 1972). 그러나 서구에 비해 결혼의 실체나 의미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결혼준비가 행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여성의 관계몰입 경향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

는 현상(Glenn, 1991)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하고, 부부 관계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완벽주의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남성의 비합리적 신념수준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특성으로 인해 부부간의 성은 항상 남성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성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언제나 아내를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성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하상희, 정혜정, 2000).

한편, 결혼의 질은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이 기혼여성에 비해 더 높다는 이전의 국내연구(김명자, 1985; 이옥진, 1982; 최규련, 1988)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변동과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가정 내 위치를 지남에 따라 여성이 결혼생활로부터 얻는 보상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의 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가 다수를 이루나, 결혼의 질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이민식, 김중술, 1996; 이정은, 이영호, 2000; 임승락, 권정혜, 1998)도 역시 존재하므로, 결혼의 질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배경 변수에 따른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

1) 배경 변수에 따른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

배경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월소득, 결혼기간, 결혼 전 교제기간, 종교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혼남성이 지각한 결혼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가구의 월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결혼 전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기혼 남성은 다른 집단보다 결혼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연령과 결혼기간, 종교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른 결혼의 질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배경 변수에 따른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 (N=301)

변수	집단(빈도)	결혼의 질		
		평균	t/F	Duncan
교육수준	고졸 이하(114)	56.59	-2.95**	
	대졸 이상(187)	59.75		
가구의 월소득	0-250만원(90)	55.88	6.04**	a
	251-500만원(151)	60.03		b
	500만원 이상(60)	58.85		b
결혼 전 교제기간	0-1년미만(131)	56.94	3.68*	a
	1-3년(113)	59.86		b
	3년 이상(57)	59.67		b

* p<.05. ** p<.01. *** p<.001

2) 배경 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월소득, 결혼기간, 결혼 전 교제기간, 종교 유무, 맞벌이 여부와 같은 배경 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교육수준, 결혼기간, 맞벌이 여부에서는 결혼의 질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가구의 월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교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가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은 유의하게 낮았다.

<표 5> 배경 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 (N=302)

변수	집단(빈도)	결혼의 질		
		평균	t/F	Duncan
가구의 월소득	0-250만원(103)	55.75	3.27*	a
	251-500만원(148)	57.62		a b
	500만원이상(51)	60.18		b
종교유무	종교 있음(220)	56.67	-2.07*	
	종교 없음(82)	59.41		
결혼 전 교제기간	0-1년미만(140)	55.95	3.56*	a
	1-3년(104)	59.47		b
	3년이상(58)	57.26		a b

* p<.05. ** p<.01. *** p<.001

3.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에 대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

결혼의 질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념에 성차가 나타났으며,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었으므로,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에 대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하위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성별로 분석하여 성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에 대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영역이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의 결혼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남성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배경 변수들 중 일원분산분석에서 남성의 결혼의 질에 유의미하게 나타난 교육수준, 가구의 월소득, 결혼 전 교제기간이 통제변수로 1단계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배경 변수 중 교육수준이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은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결혼의 질 수준이 높았다. 배경 변수의 설명력은 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단계 회귀모델에 '의견 불일치 영역',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 '성적 완벽주의 영역', '성고정관념 영역'과 같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제 영역을 추가하여 중회귀

<표 6>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301)

변수	1단계		2단계	
	B	β	B	β
배경 변수				
교육수준(대졸 이상=1, 고졸 이하=0)	2.75	.15*	1.02	.05
가구의 월소득	.03	.06	.01	.03
결혼 전 교제기간	.01	.03	.01	.02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의견 불일치 영역			-.47	-.23***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			-.89	-.36***
성적 완벽주의 영역			-.01	-.01
성고정관념 영역			-.38	-.14**
상수		55.56		90.86
R ²		.03*		.34***
R ² 변화량				.31***

* p<.05. ** p<.01. *** p<.001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투입되면서 1단계에서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중에서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이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 '의견 불일치 영역', '성고정관념 영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의 경우 배우자나 부부관계의 본질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의견 불일치는 부부관계의 질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남녀 간 갈등의 원인은 성격 및 욕구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성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의 질 수준이 높았다.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추가한 2단계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1단계보다 31% 증가하여, 배경 변수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을 34%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영역 중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 '의견 불일치 영역', '성고정관념 영역'이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다. 이것은 기혼남성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부부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수준이 높다는 신념이 결혼의 질에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의 질 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혼남성으로 하여금 어떤 배우자나 부부관계도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에서는 부부간에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과, 부부관계의 문제가 성격과 요구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에 기인한다는 신념 순으로 기

혼남성의 결혼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의 질 수준의 향상을 위해 배우자와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배우자의 의견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하면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혼남성에게 있어서 남자는 어떠한고 여자는 어떠한다는 고정관념의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2)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에 대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영역이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의 결혼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여성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배경 변수들 중 일원분산분석에서 여성의 결혼의 질에 유의미하게 나타난 가구의 월소득, 종교유무, 결혼 전 교제기간이 통제변수로 1단계에 포함되었다.

배경 변수는 결혼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 가구의 월소득이 결혼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유무가 결혼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가구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 수준이 높았다. 배경 변수의 설명력은 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1단계 회귀모델에 '의견 불일치 영역',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 '성적 완벽주의 영역', '성고정관념 영역'과 같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제 영역을 추가하여 중회귀

<표 7>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302)

변수	1단계		2단계	
	B	β	B	β
배경 변수				
가구의 월소득	.08	.13*	.02	.03
종교유무(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2.70	-.12*	-1.76	-.08
결혼 전 교제기간	.00	.01	.00	.01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의견 불일치 영역			-.33	-.14**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			-1.35	-.57***
성적 완벽주의 영역			.02	.01
성고정관념 영역			-.27	-.08
상수		56.63		98.21
R ²		.03*		.47***
R ² 변화량				.43***

* p<.05. ** p<.01., *** p<.001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투입되면서 1단계에서 결혼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가구의 월소득과 종교유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 중에서는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과 '의견 불일치 영역'이 결혼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나 부부관계의 본질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의견 불일치는 부부관계의 질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의 질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추가한 2단계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1단계보다 43% 증가하여, 배경 변수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을 47%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과 '의견 불일치 영역'이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다. 이는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이 특히 결혼의 질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신념이므로,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배우자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변화할 수 있고, 따라서 부부관계는 부부의 노력에 의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견 불일치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도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는 서로 배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부간에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기에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현재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견 불일치 영역',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 '성적 완벽주의 영역', '성고정관념 영역'과 같은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 영역들의 결혼의 질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보통보다 약간 낮고, 기혼남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부부관계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수준이 좀 더 낮으며, 결혼의 질은 보통보다 약간 높다.

한편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에는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영역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별 하위영역별로 본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둘째, 배우자나 부부관계의 본질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의견 불일치는 부부관계의 질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녀 간 갈등의 원인은 성격 및 욕구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성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이 높다.

셋째, 배우자나 부부관계의 본질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견 불일치는 부부관계의 질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결혼의 질이 높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남녀 모두 부부관계의 본질에 대한 경직된 사고와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결혼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과 달리 기혼남성의 결혼의 질은 부부관계의 문제가 성격과 요구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에 기인한다는 신념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혼남성들의 결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혼남녀에게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개인이 영위하는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부관계와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신념이 결혼의 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즉,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수준이 높은 기혼남녀는 부부관계에 대한 역기능적인 기대 자체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만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부부간 응집, 일치 정도를 반영하는 결혼의 질을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사람은 강압이나 직접적인 대화의 회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여 배우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Ellis, 1962), 갈등의 심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결혼의 질을 낮추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감소시킴으로써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남녀간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는 남녀별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 현재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역기능적 신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므로 부부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신념과 감정을 알고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부부

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입방법과 내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은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생활 경험, 그리고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결혼 전부터 생성되므로 미혼남녀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나 결혼신화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사고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Larson, 1988; Sharp & Ganong, 2000),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관한 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의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미혼남녀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도시거주 중산층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연구결과를 다양한 계층에까지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표집되었을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시거주 중산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결혼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소득층 등의 자료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개인으로서의 기혼남성과 기혼여성들을 분석하였으므로 부부의 관계적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결혼의 질은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생활 기능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므로(Lewis & Spanier, 1979), 후속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위로써 부부가 지니는 관계적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나 사람들의 신념이나 지각을 구조화된 질문지만으로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상자들의 신념을 보다 면밀히 엿볼 수 있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를 개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각 하위영역에 따른 부부관계의 다양한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고찰하여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각 하위 영역과 결혼의 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애정적 기능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부부관계와 배우자에 관해 우리나라 기혼남녀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감소시켜 결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할 것을 제언하였으므로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치료

등 실천적인 영역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 접수 일 : 2005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9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2월 22일

【참 고 문 헌】

-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35-70).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경신·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139-166.
- 김진숙·권석만(2003). 부부 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 **심리과학**, 12(1), 41-64.
- 이민식·김중술(1996).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 이성희(1992). 미혼 남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개념의 성(性)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 83-102.
- 이숙희·전영주(2004). 대학교양과정으로서 결혼준비교육의 성별에 따른 효과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27-139.
- 이옥진(1982).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족환경 변인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옥선화·이경희(2002).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37-49.
- 이정은·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임승락·권경혜(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1998년도 연차 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09-124.
-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하상희·정혜정(2000).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지**, 3(2), 27-38.
- Baucom, D. H. & Epstein, N.(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Bernard, J.(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Ban-

- tam Books.
- Bradbury, T. N. & Fincham, F. D.(1993). Assessing dysfunctional cognition in marriage: A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lief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5*, 92-101.
- Busby, D. M., Crane, D. R., Larson, J. H. & Christensen, C.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 289-308.
- Duffy, S. M. & Rusbult, C. E.(1986).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omosexual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s. *Journal of Homosexuality, 12*, 1-23.
- Eidelson, R. J. & Epstein, N.(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715-720.
- Ellis, A.(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Stuart.
- Ellis, A. & Harper, R. A.(1975). *A new guide to rational living*. Hollywood: Wilshire Book Company.
- Emmelkamp, P. M. G, Krol, B., Sanderman, R. & Ruphan, M.(1987). The assessment of relationship beliefs in a marital contex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775-780.
- Epstein, N. B., Chen, F. & Beyder-Kamjoui, I.(2005). Relationship standard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hinese and American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 59-74.
- Epstein, N. & Eidelson, R. J.(1981). Unrealistic beliefs of clinical couples: Their relationship to expectations, goals and satisfac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13-22.
- Fincham, F. D. & Bradbury, T. N.(1987).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97-809.
- Fincham, F. D. & Bradbury, T. N.(1989). The impact of attributions in marriage: An individual differenc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42-452.
- Glenn, N. D.(1991). The recent trend in marit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261-270.
- Glenn, N. D.(1998). The course of marital success and failure in five American 10-year marriage cohor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69-576.
- Jones, J. T. & Cunningham, J. D.(1996). Attachment styles and other predictor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3*, 387-399.
- Jones, M. E. & Stanton, A. L.(1988). Dysfunctional beliefs, belief similarity, and marital distress: A comparison of model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1-14.
- Kurdek, L. A.(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from demographic, individual-differences, interdependence, and spouse discrepancy variables: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21-242.
- Kurdek, L. A.(1999). The nature and predictors of the trajectory of change in marital quality for husbands and wives over the first 10 years of marri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283-1296.
- L-11. arson, J. H.(1988). The marriage quiz: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elected myths about marriage. *Family Relations, 37*, 3
- Larson, J. H.(1992). "You're my one and only": Premarital counseling for unrealistic beliefs about mate selec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42-253.
- Lewis, R. & Spanier, G.(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Pp. 268-294). New York: Free Press.
- Moller, A. T. & Van Zyl, P. D.(1991). Relationship beliefs,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 28-33.
- Sharp, E. A. & Ganong, L. H.(2000). Raising awareness about marital expectations: An unrealistic beliefs change by integrative teaching? *Family Relations, 49*, 71-76.
-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precher, S. & Metts, S.(1999). Romantic beliefs: Their influence on relationships and patterns of change over tim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834-851.
- Vangelisti, A. L. & Daly, J. A.(1997). Gender differences in standards for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203-219.